

전남, 133명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 지역 방역망 '흔들'

소형 교회 목사 10명 포함 ... 전세버스·승합차 5대로 상경
"보건소 못믿어" 코로나 검사 거부·집회 참석 숨기기도
광주서도 버스 1대 상경 의혹 ... "시 소극적 대처" 비난도

보수단체가 서울서 주최한 8·15 광복절 집회 후폭풍이 전남지역 코로나 19 방역망을 뒤흔들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20일 0시 기준,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 18명, 전광훈 목사의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676명이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면서 방역 당국은 해당 집회 참석자 및 교회 관련 인물을 파악하고, 검사를 진행하는데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집회 참석 전남 주민 일부는 "보건소는 믿지 못한다"며 경찰과 방역 당국 검사 요구에 저항하는가 하면, 일부 참석자들은 전남지사의 자진 검사 명령에도 보건소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인근 주민이 당국에 신고하면서 주민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전남도에 따르면 정의당 전남도당 등 정치권에서 제기한 '전광훈 등 보수단체 주도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전남 주민은 133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실어 나른 버스·승합차는 애초 알려진 6대가 아닌 5대로 조사됐다. 순천·여수·광양·보성 등 동부권에서 버스 2대, 신안 승합차 1대, 목포·무안·함평 등 목포권 버스 1대, 나주·담양·장성 등 중부권 버스 1대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보수 성향을 띠거나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등 일정 부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형 교회 목사 10여 명이 포함됐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이날 현재 집회 참석자 133명 가운데 26명은 음성, 67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40명은 검사가 예정돼 있다. 당시 집회 질서 유지에 투입된 전남 경찰 152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확진자는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남 각 시군 방역당국, 시군 경찰 등 행정력이 집중됐다. 신안지역 목사의 경우 "나는 보건소는 믿지 않는다"고 저항하며 경찰과 방역당국의 검사 요구를 한때 거부했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경우 집회 참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또한, 집회에 참석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본 인근 주민이 광복절 집회 참석 주민을 당국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 전국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받은 광복절 집회, 전광훈 목사의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을 다녀온 주민에게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강제하고 위반 시 형사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담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지난 16일 행정명령에도 일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전남도는 하루 새 곡성·순천·광양에서 모두 4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사람 왕래가 잦은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21일부터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동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광주시도 전세버스 1대가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싣고 서울로 향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탑승자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수도권 교회 방문자,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경찰은 단체로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찾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북도 등이 이날 '전세버스 회사에 모든 승객 명단을 제출하라'며 첫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황에서,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광화문발 대규모 감염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광주에서도 1대의 버스가 동원돼 서울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비롯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에서도 감염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러 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섬진강댐 매뉴얼 55년 전 준공 때 그대로 환경부장관 "최근 수해 '인재' 측면 있다"

조명래 장관, 환노위 답변

정부의 섬진강댐 관리 매뉴얼이 지난 196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섬진강 하류지역을 축대밭으로 만든 홍수 발생 이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수해지역 주민 앞에서 "댐관리는 매뉴얼 대로 했다"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는데, 해당 매뉴얼이 한반도 기후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55년 된 낡은 매뉴얼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섬진강 하류지역 피해 주민들의 향후 보상에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섬진강댐 매뉴얼은 1965년 댐 준공 이후 한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댐 설계 당시 매뉴얼 그대로인데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는 지적을 받고 "문제

가 있다"고 인정했다. 조 장관은 이번 홍수와 관련해 "인재(人災) 측면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이번 홍수 피해가 인재가 천재(天災)인가'를 묻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 질문에 "기록적 폭우라는 측면에서는 천재이지만,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이 '관리상 부실이라는 인재 측면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환경부 주도의 '셀프 홍수 원인 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질타도 있었다. 김용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원인 유발자인 환경부가 원인 조사를 해도 되느냐. 환경마피아가 모여 어려운 말 해가며 주민을 속이는 게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국무조정실 협의 아래

독립된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댐 방류 적절성을 살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 출신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집중호우 예보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섬진강 댐 방류량을 늘리지 않아 홍수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수자원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류를 승인하는 영산강홍수통제소의 판단이 부족했다"고 조 장관을 질타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물난리에는 인재 요소가 있다. 자연재해 주장도 있지만 평소 댐 높이를 높이고, 강둑을 더 튼튼하게 하여 적절한 관리했다면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수해 주민에 힘을 실었다. 이어 "댐 방류량 등 댐관리에 문제 있었다면 피해를 주민에게 보상하고, 그 원인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北 김여정 위임통치 후계자 결정은 안돼"

국정원 "김정은 스트레스 경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영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국정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김 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이지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임 통치는 김 부부장 1인에게만 다 된 것은 아니고 (김 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하고 가장 이양 받은 게 많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조금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또 "군사 분야에서는 당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 등에게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그 배경에 대해 "첫째는 김 위원장이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것을 줄이는 차원이었고, 둘째는 정책 실패 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리려는 차원"이라며 "근본적으로는 9년간 통치하면서 갖게 된 자신감의 발로"라고 분석했다. 여야 간사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 상설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여러 출처상 (건강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같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또 "영변 5MW 원자로는 가동 중단 상태이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폭우 뒤 쓰레기에 몸살 앓는 동북댐 ▶6면



KIA 윌리엄스 감독의 '6인치론' ▶18면

사람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2weeks
고함양 고함양 2주간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 40~50세 성인 여성 (n=100) 2019.09.16~10.17 4주간 사용 후 조사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